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842군부대를 시찰하시고 경기용총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42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백두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외치며 댕겨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봄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장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언제나 백발백중의 명중총성만을 울리며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조직과 발전 로정에 대한 해설을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역대 지휘성원들의 사진들도 보아주시면서 부대역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여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의 자욱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이 군부대에 꼭 와보시겠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시였는데 오시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오늘 시간을 내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몸소 위치를 잡아주시는 군부대가 짧은 기간에 방어진역들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고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

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군사연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부대의 싸움준비태세를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필멸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작전전투방안들과 사관들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적들의 침략기도와 전투행동수법, 무장장비의 특성에 맞게 싸움준비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군부대가 위치한 곳의 지형지물과 방어진역, 전투기술기재와 역량배치상태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적들을 방어전연전방에서 철저히 격멸소탕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군부대에서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리용하고있는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고 싸움에 철실히 필요함을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과 도서실을 비롯한 사상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 진행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군인회관의 의자에 몸소 앉으시며 동행한 일군을 앞좌석에 앉아보게 하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앞이 잘 보이는가도 가늠해보시고 회관바닥의 시공을 잘하여 무대가 환히 보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도서실에 들리시며 격정에 겨워 인사를 울리는 사서에게 수고한다고 다정히 말씀하신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열렬한 독서가로 자라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부대에 확립된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상문화교양시설들을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치하하시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식당, 취사장, 부식물창고 등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옹호의 뜻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병영구내를 돌아보시며 군부대에서 전투정치훈련은 물론 부대지휘관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록화도 더 많이 하고 병영내부와 외부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도록 대

여 지적하시였다.

전투정치훈련과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부대를 오늘의 오종훈7련대로 만들겠다는 지휘관들의 결의도 만족하게 들어주시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자주 오겠다고, 건강하여 훈련을 잘하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기용총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경기용총탄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화학실험실과 물리실험실을 비롯한 여러 실험실들과 탄알소재생산으로부터 탄환조립에 이르기까지의 총탄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총탄생산정형과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및 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국내의 원료와 자재로 경기용총탄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여러가지 경기용총으로 각이한 거리에 있는 과녁을 쏘아맞히기를 겨루는 국방체육경기종목인 사격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면 사격선수들이 총을 많이 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이 공장에서 경기용총탄을 대량생산하여 선수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생전에 경기용총탄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

들은 장군님께서 늘 위우시던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업소를 국방체육의 밑뿌리공장으로 더 잘 꾸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기용총탄생산을 늘이고 총탄의 질을 한계단 높이자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실내사격장, 야외사격장을 비롯한 메아리사격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 및 봉사활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시였을 때 몸소 리용하신 경기용총도 보아주시였으며 사격과녁과 목표판, 관람석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시였다.

몸소 사격을 해보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경기용총탄의 집중성과 사격장의 조도, 방음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메아리사격관을 잘 관리운영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기용총탄공장을 짧은 기간에 현대화하며 메아리사격관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기념 《2월의 봄 음악회》

미국에서 진행

광명성절기념 《2월의 봄 음악회》가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음악회장소는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은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루었다.

재미동포들과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성원들 그리고 로씨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외교관들, 미국인사들

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우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가 지휘하는 관현악 앙상블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조선의 장군》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녀성독창 《축복받은 나의 삶》, 바이올린독주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렷니다》, 관현악 《통일무지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필승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천출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관현악 지자 전체 관람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터쳤다.

본사기자

북녘동포들은 참으로 경도자복이 있다

재미동포 언론인의 글

반되고 따르는 북녘동포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뢰의 표시라고 굳은 지적하였다.

같은 지난해 12월 대국상 이후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이리저리 북의 영상에 먹칠을 해보려고 외국보도, 석상도막을 일삼은것은 헛된 망상이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 그대로인 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활동은 세계정치계의 초점으로서, 국제사회인론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굳은 밝혔다.

같은 북을 방문하는 기간 중국, 로씨야 등에서

은 해외동포들과 만나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해 언급하고 모든 해외동포들이 그분을 다정하고 자애로운분이라고 한결같이 칭송하였다고 썼다.

같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직접 만나본 해외동포들 그리고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동포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을 통해 그리고 언론들이 보도한 소식들을 듣고 본 해외동포들은 《참으로 친근한 분이시다》, 《젊으신분인데 어찌하면 그러도 다정다감

할지》, 《김일성주석님, 김정일국방위원장님과 꼭 같이신분입니다》고 칭송하였다.

나는 북녘동포들, 해외동포들과 함께 주고받은 대화들을 통해 북에서는 선대수령의 혁명력사만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령사도 그대로 흐르고 있을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들은 각이했어도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하나와 같았다.

한 해외동포는 지난 대국상때 북녘동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베풀어진 세심한 배려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사랑을 주시여도 하늘같이 큰 사랑을 주시고 은정을 베푸시여도 바다와 같이 넓은 은정을 베푸시는 도량을 지니신 분이여 이런분을 모신 북녘동포들은 참으로 경도자복이 있다》고 말하였다.

북녘동포들은 오래전부터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을 누려왔으며 노래 《발걸음》을 부르며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열렬히 호모하였다.

조국통일과 조국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동포들은 은 거개가 또 한분의 찬란한 태양을 모시도록 해주시여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대공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다 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보통강수산물상점 개업식 진행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만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통강수산물상점이 새로 일떠섰다.

연건축면적이 3 940여㎡에 달하는 상점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특색있게 건설되였다.

상점의 1층에는 신선한 물고기들과 말린 수산물들, 명란, 조개, 바다나물들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

품들을 판매하는 매점들이 갖추어져있다.

식당으로 꾸려진 2층과 3층에서는 각종 물고기랑과 회국수, 평면, 불고기 등을 봉사하게 된다.

보통강수산물상점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식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또 하나의 훌륭한 상업봉사기지이다.

상점 개업식이 21일에 진행되였다.

개업교를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상점 지배인 김미화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개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상점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우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 광대국을 벌려놓는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우렁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합동성명

남조선괴뢰들이 오는 3월말 그 무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는 미국과 괴뢰패당이 반공화국핵소주의의 관을 더 크게 벌려놓으려는 또 하나의 유죄한 광대국이다.

미국이 핵전초기지이며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인 남조선에서 핵안전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한다는것은 그자체가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북침핵전쟁발장난이 벌어지고 화약내가 질게 풍기는 속에서 그 무슨 《핵안전》이요 뭐요 하는것이야 말로 내외여론에 대한 우렁이며 모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들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 개최책동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녀원에 배치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범법행위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락인하고 준렬히 규탄한다.

괴뢰패당이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서울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으려고 하는것은 파산에 직면한 《북핵위협론》에 바람을 불어넣고 북침핵전쟁책동을 합리화

하며 민심의 이목을 면대로 돌려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참패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이다.

남조선민심으로부터 고립되어 산송장이 된 리명박패당이 미국을 업고 그 무슨 회의를 개최하는것으로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지만 그로부터 얻을것은 미국상전의 특등핵전쟁하수인으로서의 정체를 더욱더 드러내는 결과밖에 없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핵소 동모의판에 불과한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야말로 인류의 수치이며

력사에 치욕과 오점만 남기게 될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반공화국핵소 등에 매달릴수록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길에는 더 큰 장애가 조성될 뿐이다.

우리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핵도미판을 벌려놓는 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무적필승의 선군위력으로 평화의 교관자, 파괴자들의 반공화국핵소등을 단호히 짓부셔나갈것이다.

조선아시아대평양평화위원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주제 101(2012)년 2월 22일 평양



봄의 교향곡이 울립니다

은 겨울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보내었습니다.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강성화 민족의 새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강그리 바치셨습니다. 그리와 숭고한 뜻과 헌신의 로고가 꽃을 피워 지금 이 땅에는 강성국가의 봄이 오고있습니다.
뜻깊은 2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조국강산에 찾아오고있는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저는 위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조선민족의 새봄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민족처럼 봄을 사랑하고 그것이 정서로 굳어진 민족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산골마을의 봄풍경을 그린 18세기의 조선화 《봄》에는 아름다운 리상춘에 대한 겨울의 지향과 소박한 넘버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봄에 실어 이 땅의 여성들은 그때라고 하늘높이 날아오기도 하고 남성들은 동네가 들쭉하게 씨름판을 벌여놓기도 하였습니.

어렸을적에 본 일이지만 제 고향 개성에서 로 립촌날이면 사람들이 《립촌대길 진양대경》(봄이 오자 행복이 오고 계절따라 경사가 깊다)과 같은 갖가지 소리를 담은 글을 써서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이곤 하였습니.

지금 우리 녀성들이 널리 애용하는 《봄방기》 화장품에도 봄을 사랑하고 봄과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이 나라 녀인들의 애뜻한 봄정서가 어려어있다고 봅니다.

우리 겨울이 수천년 간직해온 봄에 대한 소원, 그것은 자연의 봄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인간의 행복을 갈구하는 사회정치적 지향성이었습니다. 봄과 더불어 이 세대의 침략이 없고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며 풍년든 아름다운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조상대대로의 소원이고 갈망이었습니다.

겨레의 봄에 대한 갈망은 압록의 일제통치시기에 최초로 분출되었으니 그때의 빼어난 광경을 저는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박팔양. 민족문학에 《카프》 작가로 기록된 한 사람입니다.

수난의 그 세월 프로문단의 지방에서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냘픈 꽃을, 이른 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축절없이 떨어지는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하며 애달고도 외로운 진달래꽃을 불안고 울던 저의 아버지.

나라있고 봄도 없던 그 시절 아버지와 친지들이 피라게 절규하던 애절한 목소리가 오늘도 가슴을 찡니다.
《지금의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부르짖던 리상화씨. 《아아 과연 봄이로구나!》 생각할수록 이 가슴은 봄을 안고 갈망 몰라라》 하며 답답한 가슴을 쥐어뜯던 조명희. 《화장스런 봄바람에 환성기를 바라노라》고 《봉선화》 노래를 지은 흥관파...

빼앗긴 조국과 강토에 대한 사랑, 봄에 대한 갈망이 담긴 피

은 웨침들은 어린 저에게도 땅국의 비참상을 일깨워주고 자연의 봄을 알기 전에 민족의 봄을 먼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선의 밤하늘에 태양이 솟아올라 삼천리강산을 밝게 비추었으니 억눌린 겨레의 가슴마다에 희망을 안겨주며 백두산에서 높이 울린 총소리가 지금도 저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그 총소리를 들으며 너무나 감격하여 희망 잃고 한숨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봄이 왔다.》고 《승리의 봄》을 목메여 웨치던 아버지였습니다.

비에와 절망만을 안고 흐르던 봄, 설움과 고통만을 안고 흐르던 봄은 민족의 태양을 모시어 더더 희망과 락판을 안고 흐르게 되었으니 해방의 환희로 삼천리가 끊고 《김일성장군 만세!》의 합성이 하늘방울 뒤흔들던 그날의 감격을 제 한생 잊을수가 없습니.

차디찬 남쪽사회에서 온갖 정치적, 육체적고통을 다 겪으며 살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따뜻한 봄의 내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지가 몇그제 같은데 이 땅에서는 지금 강성국가의 봄의 교향곡이 울리고있습니다.

뜻깊은 2012년과 더불어 조국강산에 깃들고있는 강성국가의 봄은 민족의 력사에 가장 찬란하고 환희로운 새봄입니다.

봄은 겨울을 이기고 찾아옵니다.
지난해 우리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하늘처럼 민고살던 민족의 어머니를 잃는 대극상을 당하였습니다.

그처럼 맑고 푸르던 조국의 하늘도 보이지 않고 사방 먹구름만 끼여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인민이 러치는 애절한 곡성이 행성의 한끝까지 울려간 피눈물의 1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
장군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찬눈이 쌓일새라 솟을을 벗어 깔고 장군님 가시면 안된다고 령구차를 걸걸이 에워싸고 막아서던 이 나라 인민들.

그것은 지울레야 지울수 없는 그리움의 불이었고 끌올래야 풀을수 없는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화폭이었습니다. 령도자와 인민이 더욱 하나가 되는 이 세상 어디서도 볼수 없는 눈물의 광경이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화폭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 해외동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수천수만년 인류력사에 자기 령도자를 이렇게도 끔찍이 사랑한 국민이 또 있었던가. 눈물없이 볼수 없고 들을수 없는 최고지도자와 전체 인민사이의 참된 사랑의 이야기에 하늘마저 감동했다.》고 격정을 토로했습니.

조선은 다시 일떠섰습니.
또 한분의 위인 이신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받들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새해의 총진군에 떨쳐 나섰습니.

그 무슨 《봉괴설》이라는것은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
《변화설》도 통채로 날아났습니.
조선은 2012년의 아침을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으시는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또 한분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의 계승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승리입니다.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승리는 입니.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정신력의 강자로 자라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7월의 비애의 바다를 헤쳐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이겨냈으며 억장이 무너지는것과 같은 12월의 슬픔도 견디어내며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제일 강하고 훌륭한 군민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행성이 어둠과 비관속에 맞은 2012년의 아침에 우리 조국에서는 령도자와 군민의 일심단결승리의 만세소리, 강성국가의 새봄을 열어가는 진군의 만세소리 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체제대결에서도 자본주의를 높였고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도 승리의 통창훈을 불렀습니.

선군의 힘으로 언제나 침략세력의 강경고압압살책동을 깬부서 버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해 세상사람들은 《인류력사의 최대최강의 제국주의 미국을 두번이나 무릎꿇게 하신분》, 《미국의 8명의 대통령과 상대해 결국 미국을 대화의 마당에 불러내신 회세의 령장》 이시라고 격찬 하였습니.

저는 지난해 9월에 진행된 로 농직위대의 성대한 열병식을 보면서, 료해공군의 합동훈련을 보면서도 천출명장이 계시고 불래의 장군이 있어 내 나라라는 끄떡없다는 생각이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훈련의 전과정은 워생TV로 지켜본 한 해외동포는 《미군의 다련장르케트로 는 흔히 타격대상에 간헐미를 쏘는다고 표현하지만 인민군방사로는 타격대상을 불폭풍으로 날려 보낸다고 표현할수 있다.》고 감탄을 터쳤습니.

큰 산을 삼키고 불바다로 만드는 위력적인 화력전은 조선의 국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고 그 힘이 얼마나 무진막강한가 하는것을 보여준 2011년의 사변중의 하나입니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 하는 강성국가의 봄은 머지않아 펼쳐질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입니다.

봄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봄이 있어 여름이 오고 온갖 열매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이 펼쳐집니다.
강성국가가 겨레의 만복이 꽃피날 환희의 가을이라면 봄은 그 대문을 활짝 여는 격동의 사변입니다.
어제는 자주강국의 존엄을 실은 인공위성이 하늘을 날고 민족의 슬기 어린 CNC화로 지식경제의 최첨단을 돌파하는 최첨단 현실이 펼쳐지더니 오늘은 주제철, 주제비료, 주제비날론폭포에 이어 파수의 바다가 온 나라에 펼쳐지고 자립적핵동력체제가 갖추어지고있는 내 조국입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오른 북이 이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평했듯이 우리 조국은 경제건설에서도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며 나라의 곳곳에서 강성국가의 봄소식을 련이여 전하고있습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을 발휘하여 벌써 지난해에 언제쌍기와 물길굴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고 보란듯이 《강성대국의 봄을 알린 3월 25일》이라고 큰직한 글발을 세 내붙이었습니다. 열마천 회천 1호, 2호 발전소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접하면서 저는 불밝은 평양의 거리, 인민의 행복의 봄을 자나깨나 그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는 발전된 몇몇 나라에 의존해서 끌려가는 경제가 아니라 세계의 경제과동에도 끄떡없이 제힘으로 나아가는 자립의 경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경제가 아니라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모두가 잘살게 하는 경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식 경제강국건설의 특징이고 우월성이며 밝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겨레의 소원, 장군님의 리상이 꽃피어나 도처에 인민생활 향상이 지어 번듯하게 꾸러지고 인민의 기쁨과 웃음이 날로 커가는 내 나라라는 오늘도 종지만 배일의 하늘은 더욱 살기 좋은 인류의 리상향으로 될것입니다.

군력이 강하고 사상과 제도도 으뜸이며 흥하는 바람까지 세차게 이는 우리 조국에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 새봄이 눈앞에 왔으니 지난해 민족의 봄을 예게게 부르던 아버지와 동료시인들이 오늘을 분다련 얼마나 가슴추련하게 환희의 감정을 노래하였습니.

2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로 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군시대의 명작인 연극 《오늘을 추억하라》를 보면서 선념과 의지로 고난을 헤쳐온 어제를 감회깊이 추억하곤 합니다.
그 나날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나는 선군길이 아무리 힘들해도 기어이 가자는거다. 인민들은 반드시 이것을 다 리해하게 될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조국과 후손대대를 위해 무엇을 해놓았는가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이제 보라. 통창훈을 남을 날이 꼭 온다. 동무들 믿으라! 승리를 믿으라! 미래를 믿으라!...

그러시고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었다고 합니다.
...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부르시며 장군님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에서 우리 조국은 마침내 승리의 통창훈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조국에서 첫 핵시험이 진행된 2006년 10월 남조선에서는 《단군 이래 최고의 기념비적재거!》 《드디어 조선민족에 핵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 5천년력사이래 이런 날이 울쉴이야.

김정일장군님 만세!!!!!!》, 《우리 민족이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영원히 해방》,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백두의 담력으로 세계를 뒤흔드시는 용장중의 용장》이라는 각종 주민들의 글들이 인터넷홈페이지들에 실렸습니.

승리의 포성은 우리 조국에서 련이여 울렸습니.
우리 나라에서 지하핵시험이 두번째로 진행된 번이 난 2009년 나 장군님께서는 선언하시었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겠습니!
승리하면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한 탓에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것은 지난날 우리 민족의 어쩔수 없는 숙명처럼 되었습니다. 령장의 간섭과 침략위협이 그칠새 없었던 19세기말~20세기초에는 오늘날 이 나라, 메일은 저 나라에 의존하다가 끝내 땅국의 천길나라에까지 떨어져야 했던 조선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
행피성이 지구를 뒤흔들던 그날은 바로 우리 나라가 세계에 몇 안되는 핵강국으로 치솟은 날이었습니다. 조선은 더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선언한 사변이었습니다.

선군의 보검으로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영원한 자주와 존엄의 하늘,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 시야말로 겨레가 천만년 길이 추앙할 위대한 인인이십니다.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길, 눈보라 천만리길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사랑의 길, 조국의 통일대명을 위한 애국의 길이었습니다.

고급동서에 집권자치고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

그러나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몸을 강그리 불태우신 그런 령도자를 력사는 알지 못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도 크나큰 은정을 안겨 주시었습니다.

죽음의 생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었고 주신 사랑 부족하신듯 사랑과 배려를 저들저들 배풀어주시었습니다.
자신께서는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조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우리들은 휴양소로, 구월산과 칠보산, 시원한 동해바다에 보내주시는 장군님이십니다.

언젠가 저는 한 일꾼으로부터 남조선의 한 기업가가 고급침대를 비롯한 수백명의 가구들을 정성껏 만들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선물로 올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 그 사연깊은 침대들이 우리가 든 휴양소 침실들에 놓인것을 보게 될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과 인민들에게는 따뜻한 집과 폭신한 침대를 안겨주시면서도 자신께서는 늘추는 야전차의 좌석을 침대로 삼으시고 천지지도의 길을 낚과 밤이 따로 없이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얼마전 새로 나온 기록영화 《백두의 선군혁명유업을 계승하시어》를 보면서 저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신날마저 매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어 안타깝고 서운하게 밤을 지새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어느해 2월16일

에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만만은 꼭 집에 오시기를 바라며 어머니와 함께 밤새워 기다리셨었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슴저미는 추억의 말씀이 이 늙은이의 심장을 팡팡 울려주었습니다. 인민들의 행복을 창조하는 길에서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그리도 안타까우시어 시계의 초침보다 더 마음 앞서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던 장군님이십니다.
2012년의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함께 발걸음 맞추어 달리고 또 달리지라고 하시며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한해가 저우는 12월에도 눈보라강행군길에 오르시었습니다.

쌍이고쌍인 정신육체적라고와 중병으로 심한 아픔이 엄습해오던 그 나날 일꾼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눈보라 몰아치는 현지지도의 길을 끝끝내 헤쳐가셨으니 생애의 마지막걸과 정력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다 바치시며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그런 절충한 령도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었습니.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봄을 불태우는 백두의 눈보라처럼 그리고 격렬하게 한생을 불태워 오시었습니다.

그이 가시던 경결의 날, 온종일 하늘에서는 눈이 펄펄 내리었습니다.
장군님 가시는 마지막길에서는 눈을 맞지 않으지게 하늘아 재발 눈을 멈추어다오 하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약속하게 내리고 또 내리던 눈.
그속으로 장군님은 사랑하는 인민을 뒤로 하고 떠나가시었습니다.

인민에게 따뜻한 봄, 영원한 행복의 봄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사나운 눈보라를 자신에게서 다 안고가시었습니다.
지금 조국강산에 깃드는 강성국가의 봄은 장군님 한생토록 맞고맞으신 눈보라의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장군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민족의 부흥이고 찬란한 정성기입니다.

장군님 결으신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이 내 조국을 지키는 천리방성이 되고 장군님 가시는 곳마다에 하나하나 물어주시 부흥의 씨앗들이 울드고 꽃을 피워 민족이 세세대대 갈구하던 강성국가의 봄이 오고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온 13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아버지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읽은 감동속에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소원해온 장군님의 동상을 건립하는 일을 그이께서 매년 불허하신것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문제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생각하고있다고,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다 실천하지 않는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싶은데 나의 동상을 세울수 없다고, 수령님께서 그렇게 바라시고 애쓰던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때에 나의 동상을 세우는것은 허용될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장군님.

얼마나 통일만을 생각하셨었으면 공산주의도덕의리에 충실한 혁명가라면 지금같은 때에 나의 동상을 세우자고 할것이 아니라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에 동상을 세우자고 하여야 할것이라고, 우리가 수령님의 혁명유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민들이 동상을 세울것이라는 말씀도 하시였겠습니까.

통일된 삼천리는 그이의 소원이고 최고의 리상이였으며 행복의 모든것이었습니다.

피눈물의 12월 장군님 타신 야전렬차의 고동소리는 통일을 부르는 그이 심장마지막의 고동소리였고 온 겨레가 힘을 모아 통일조국을 우뚝 일떠세우라는 절세위인의 절절한 당부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비록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시었지만 민족을 위해 사실상이 땅의 통일을 다 이루어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겨레는 이미 장군님대에 통일이 어떤것인가를 크나큰 환희와 격동속에 체험했습니다. 통일로 가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귀중한 라침판도 얻었습니. 장군님 활짝 펼쳐주신 6.15의 길이 바로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이요 장군님 열거하신 하늘길, 땅길, 배길이 북과 남을 이어주는 민족의 피줄, 통일조국의 다리입니다.

통일은 바로 장군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6.15시대를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장군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십니다. 빛나는 그 존엄으로 함께 계시고 태양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며 쌍이신 위대한 업적으로 영생하십니다.

저희들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쪽에서 온갖 옥중고초를 다 겪으면 서도 오직 장군님만 민고 따르며 통일이 온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봄은 반드시 온다. 전향자부!》를 웨치며 끝까지 싸워 마침내 선념의 승리가 되어 조국의 품에 안겼수 있었습니.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6.15통일시대가 펼쳐지고 강성국가의 봄도 오는것처럼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봄은 우리 민족이 받들어올린 또 한분의 위인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따르는 길에서 옵니다.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펼쳐지는 새해의 첫 아침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공사단을 찾아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깊은 애국의 발걸음은 통일강성국가에로 가는 력사의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행성을 쫓고 울린 그날의 발걸음에서 겨레는 벌써 부흥의 방울이 쟁쟁 갈라지는 통일의 봄우뢰소리를 듣고있습니.

강성국가승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온 겨레가 일제안고 기쁨의 통일만세를 부를 통일강국의 광장에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세우고 민족이 천만년 길이 무락할 행복의 그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옵니다.

그때 세계는 들게 될것입니다.

통일삼천리에 울려 퍼지는 조선민족의 위대한 봄의 교향곡을.
저는 김정은동지가 있기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주제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를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 따라 통일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비전향장기수 박문재

시 우리 장군님!

<p>만고절세의 애국가 김정일장군! 만고 불변의 선군혁명이 백두광명성! 사랑의 화신 탄생 70돐을 맞은 2012년 2월 16일</p> <p>통일겨레들의 가슴에 영원으로 새겨진 태양의 영상!</p> <p>정의와 진리의 해살로 2월 대지에 새 생의 숨결 불어넣으시며</p> <p>오늘도 여전히 인민복 입으신채 인민행 렬차를 타시고 쏘에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우리 장군님!</p> <p>천만자식들 기쁘면 기쁘서</p>	<p>슬프면 슬퍼서 아버기를 찾고 부르듯 빼없이 찾고 불러온 이 다섯자에 비껴있는 사랑의 우주, 사랑의 세계...</p> <p>통일겨레와 세계 반전평화민중들이 한결같이 경모, 흠모하는 반제혁명, 인류구원의 백두광명성!</p> <p>수세기 전쟁, 침략, 약탈과 착취로 살찌운 자본의 필연의 력사 가리고 덮기 위해 세상 나팔수들을 총동원하여 결사적으로 중상모략해대는</p>	<p>제국주의메우리들</p> <p>그뿐이랴 우리 조선반도 하반신을 깔고앉아 목을 조른 67년 부족한것, 어려운것 한두가지 아니었다</p> <p>하지만 피눈물삼키며 일떠선 반제자주 선군혁명의 총대가 있어 우리 겨레의 목숨 세계 반제자주민중의 운명이 지켜졌거니</p> <p>7천만 통일겨레들과 세계 반제자주민중들은 백두광명성탄생 70돐을 기념하는</p>	<p>오늘</p> <p>위대한신 김일성주석님! 아버이 김정일장군님! 영광과 축복의 꽃보라 날리는 통일광장의 높은 단상에 승엄경건히 모실것을 다짐하노라</p> <p>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더불어 영생하시는 우리 장군님! 우러르고 또 우러리며 김정은 최고사령관동지 발걸음 따라 강성대국의 최후승리 열병식장으로 통일광장의 열병식장으로 격정과 환희에 넘쳐 달려갈것을 아버지장군님께 천만번 충성으로 다짐합니다</p> <p>도이힐란드에서 2012년 2월 16일</p>
---	--	---	--



아버이장군님을 전세계 높이 받들어모실 신념의 맹세 정일봉하늘가에 매이리진다.

서만술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령중앙인재개발원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서만술동지가 주제 101(2012)년 2월 19일 오후 7시 5분 심부전으로 인하여 84살을 일기로 예석하게도 서거하였다는것을 비통한 마음으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알린다.

서만술동지는 애국애족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교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한덕수장군과 함께 오랜 기간 총련애국애국사업과 조국의 통일사업, 나라의 통일에 한몸바쳐온 총련의 원로이며 많은 공로를 쌓아올린 정치활동가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수난의 시기에 경상북도의 빈궁가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14살때 항학심을 안고 일본에 건너와 토폴이로동으로 고학을 해야만 했던 서만술동지는 일제의 추악한 침략본성과 상가집 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온갖 천대와 멸시만이 가해지는 이국살이의 나날 서만술동지는 백두산을 주름잡으며 일제를 쳐물리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성전선소식에 접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확신과 신념을 간직하고 곳곳이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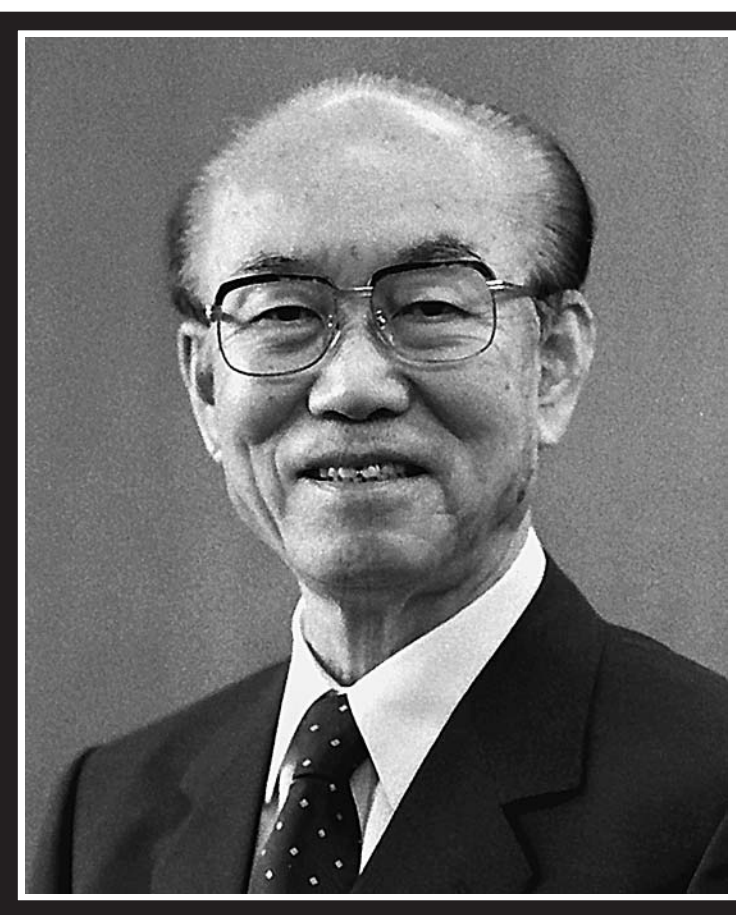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승리를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신 후 해방된 조선청년의 기쁨과 영예를 안고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야마구찌현 오노다지부의 청년부원으로 사업하였으며 1946년 4월부터 조련중앙고등학교에서 제1기생으로 배운 서만술동지는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 야마구찌현 히로시마현본부의 전일일군으로 동모청년들에게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고 민족적근지를 안겨주는데 청춘의 정열을 쏟아부었다.

서만술동지는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함께 좌경적로선의 영향으로 우리 애국애국운동이 시련을 겪고있었던 엄혹한 시기에 한덕수장군의 지도밑에 어버이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하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에 앞장서 구원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5년 5월 25일 총련을 무어주신 후부터 서만술동지는 총련 히로시마현본부 부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자신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명한 힘으로 단련한민서 관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교시관철으로 힘차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다.

서만술동지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념과 배려로 총련중앙 조직국장, 사무총국장, 부의장, 제1부부장, 의장의 중책을 지니고 총련애국애국운동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수령과 령도자, 자기 조국과 조직에 자신의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충정을 다 바치었다.

서만술동지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



서만술동지

과 령도를 어김없이 구현하는것을 제일 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총련을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모시며 충정을 바쳐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오를 공화국의 민음직한 해외공민단체로 꾸리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쌓아올렸다.

서만술동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강령적방침을 관철할 드림없는 결의밑에 변화된 세계정세와 총련의 사업환경에 맞게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사업방법을 전환하여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군중지대를 확대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사수보존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였다.

동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이익, 기업권과 생활권을 고수확대하는 사업, 동포들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꾀어주는 사업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오래동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에 헌신해온 서만술동지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 실천하는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의장동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치사상강국, 당당한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사회주의조국의 통일변영에 특색있게 기여하는 사업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였다.

서만술동지는 헌지지도의 길을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첨질에서 순직하시었다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비보에 접하여 커다란 슬픔을 안고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시며 주체사업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정으로 받들어모실 맹세를 굳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2월 9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김정일훈장을 안겨주시었다는 소식에 접하여 이 뜨거운 은정에 대를 이어 보답해나가자고 하던 서만술동지는 애석하게도 우리의 결을 떠나갔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무한히 총창하였으 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을 앞장에서 지도해나갈 총련의 의장을 잃은것은 우리 총련조직과 애국애국운동의 커다란 손실이다.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 김정은동지가 못 다한 애국애국업무를 곳곳이 이 세 전성기개척의 도약대를 기어이 마련할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서만술의장동지는 비록 우리의 결을 떠나갔으나 자기 수령과 령도자에 대한 충정의 열정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 총련애국애국사업에 쌓아올린 그의 고귀한 업적은 재일조선인운동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주제 101 (2012)년 2월 20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열마진 남조선의 통일부가 지난 4년간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 북남관계에서 그 무슨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느니,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느니 뭐니 하고 자화자찬했다.

6.15시대와 더불어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더 이상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은 반통일역적무리들이 감히 그 무슨 《성과》느니,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느니 뭐니 하고 자화자찬했다.

6.15시대와 더불어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더 이상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은 반통일역적무리들이 감히 그 무슨 《성과》느니,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느니 뭐니 하고 자화자찬했다.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량립될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발표된지 5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물파루를 열자면 온 겨레가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곧 애속과 분열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다.

력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조차 큰 나라들의 조종력에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매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군대가 대궐의 파수병을 세웠다.

외세에 의해 나라와 민족이 분열된 후 과거 남조선의 통치배들도 민족을 등지고 미국에 아부굴종하면서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과 대결하는데로 나아갔다. 이것을 기회로 미국은 남조선집권자들을 배후조종하면서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북침전쟁준비책동으로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격화시켜왔다. 남조선통치배들의 사대매국책동과 미국의 끈질긴 방해책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였을것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는 조국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이 우리 민족사가 남김 퍼의 교훈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의 생사존망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이 중대사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조국통일의 담당자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며 10.4선언을 통해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질적인 통치를 통해 뚜렷이 입증되었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사대와 외세의존을 끝장낼 때에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새겨안았다.

헌시기 남조선보수당국은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도전하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통째로 외세에게 넘겨버리고있다.

이미 집권초부터 미국,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력실해 온 리명박 《정부》가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로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에 앞장서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온 겨레가 민족의 대국상으로 피눈물을 쏟고있을 때에 도역적대당을 조의를 표시하지는 못할망정 미일상진들과 련일 속덕공론을 벌리면서 허황하여 《키 리브스》, 《금번사태》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지금도 남조선호전파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브스》,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대화》니 뭐니 하고있는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우용이 아닐수 없다.

우리 겨레가 이러한 대결전쟁책동을 묵인한다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룰수 없고 민족이 해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비극을 면할수 없다.

민족자주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조국통일과 평화변영의 밝은 메일도 있다.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 이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의를 팔아먹는 극악한 사대매국노인 리명박이당의 외세의존책동을 뒷받침하고있고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재일이며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설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결집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본사기자 윤현주

《5.24조치》와 《대화》타령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 모략적인 《천안》 호사건을 구실로 이른바 《5.24조치》라는것을 내들고 당국대화는 물론 민간단체들과 기업들이 진행해오던 북과의 접촉과 협력사업들을 전면 차단해놓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쪽으로는 《대화》를 떠드는 모순된 행동을 하여 겨레의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15일에도 남조선의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문제에 놓고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 지구의 《신규기업유치와 공장신축제한은 《5.24제조치》에 따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었다.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5.24조치》라는것은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넣은 조처중의 하나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5.24조치》라는것을 구실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협력단체들이 제기하는

공화국과의 접촉신청을 모조리 잘라버렸으며 북남민간단체들사이엔 진해해오던 통신선과 기사교류마저 차단했다.

《5.24조치로 하여》 북이 3억US\$의 벌금을 무는 셈이니 뭐니 하는 고약한 망발을 일삼으며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던 남조선기업들이 무리로 쓰러지는데도 눈살 하나 까딱하지 않은 랭헬인, 극악한 동족대결강선자들이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다. 바로 얼마전에 남조선 보수당국이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회원들이 제3국에서 북측성원들과 만나 그것마저 가로막아나선것도 이른바 《5.24조치》를 통해 감행한 반통일대결망동이다.

북남관계에서 차단봉을 계속 내리우고 《원칙고수》, 《불허》를 넘볼처럼 위무면서 그 이름으로 《대화》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낯간지러운 행위이다. 그 약탈한 기만책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민족의 대국상으로 피눈물

을 뿌리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인륜도덕도 모르고 배틀이외의 집단인 남조선 보수당국이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대역죄에 대한 자그마한 반성도 없이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떠들다 못해 최근에는 《리산가족상봉을 위한 직접자실무접촉》이라는 오그랑수까지 들고나오는것이야말로 역겹기 그지 없는 추태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는 그대로 놔두고 《대화》와 《접촉》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이 마치 북남관계에 그 어떤 《관심》이라도 있는것처럼 여론을 이도하여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보려는 어리석은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대화》 타령이나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민족화합과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5.24조치》부터 실천적으로 허물어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대화파괴자들의 자화자찬

말씀마다 《일관성》이니, 《유연성》이니 하고 목에 피대를 돌고있지만 보수세력의 궤변에 귀기울일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통일부의 유리한 말장난을 두고 《(저승사자)의 자화자찬》이라고 조소하고있겠는가.

그들이 력실하는 《관계정상화를 위한 토대》라는것이야말로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지속시키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몰아오기 위한 민족반역의 수령탕에 지나지 않는다.

안팎으로 규탄배격당하고 있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제아무리 민심을 오도해보려고 말악해도 파멸의 위기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통일의 악랄한 방해자인 리명박역적대결에게 차레질것은 오직 민족의 존엄한 심판뿐이다.

김연희

남조선보수세력이 4월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무슨 《쇄신》이니, 《변화》니 떠들면서 민심을 우롱하고있다.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을 뜯어고치며 매일같이 부상을 퍼주고있다. 지어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말까지 늘어놓으며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변신술을 쓰는것은 보수집단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죽어가는 몸에 새옷을 걸친다고 그 체질과 운명이 달라질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거짓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마태복음 7:15)고 하였다.

거짓예언자, 이 말은 오늘 리명박보수집권세력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간판은 《실용》이라고 달고 별의별 《보라빛공약》 들을 수 없이 람발했으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현 집권자의 《민생경제살리기》공약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는 집권하면 《경제를 살리려고 민생도 해결하겠다.》고 웅시리를 치면서 《민생경제살리기 10대과제》니 뭐니 하는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허황한 공약들을 수없이 내놓았다. 경제성장을 몇배로 올린다, 인구 1인당 소득을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 남조선을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올려세운다

에 이르렀다. 이전의 중산층들은 하층,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빈곤한 가정들이 지고있는 빈은 평균 수천만원에 달하고 물가와 각종 세금, 등록금 등이 해마다 급격히 뛰어들어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일자리 없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되는데 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반역패당심판을 위한 투쟁 선언

남조선의 1 0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반역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결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다.

기자회견에서는 결성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은 리명박 《정부》가 집권기간 반민족적 악정으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갔다고 규탄하였다.

18대 《국회》 역시 독재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반민중적인 예산안, 악법안들을 련속 날치기로 처리함으로써 《날치기국회》라는 비난을 받고있다고 선언문은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실현에 앞장섰거나 이와 공모한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날치기 공개하여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사업의 첫 일일적으로 18대 《국회》기간 반민중적인 예산안들의 날치기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본사기자

《거짓예언자들을 조심하라》

는 등 귀뚜방은 소리도 높여놓았다.

그런데 보수당당이 강행한 정책들은 《부자감세》, 《공기업민영화》, 《4대강 정비사업》, 《부동산투기 규제완화》, 《사회복지예산축소》 등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어서 경제와 민생파탄, 사회적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지금 남조선정부는 불치의 병을 앓고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날마다 무리로 파산몰락하고 있다. 부유층과 하층의 소득차이가 10년전에 5~6배 정도였다면 지금은 근 30배

중 청년실업률은 평균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한해에 6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약속은 물론 건너고 10명중 6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직업을 얻지 못해 반실업자 또는 완전실업자로 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반면에 구소수의 권력자, 부유층의 돈주머니는 불어날대로 불어났다. 이런것이 과연 《국민행복》인가.

결국 99%의 주머니를 털어버어 1% 가진자들의 배를 채워준것이 리명박 《정권》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현 집권자의

등 도적질뿐이다.

북남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더이상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무너트린 장본인이 리명박이다. 그 무슨 《원칙고수》를 떠들면서 대화와 협력, 평화를 모조리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범이 리명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당은 속에 품은 대결의 비수는 감추어두고 그 무슨 귀뚜방은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우롱이다.

지난 4년간 《안보》니 뭐니 하면서 북침전쟁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서해를 초포성 울리는 전쟁의 바다로 만든것도 리명박 《정권》이다. 그들이 떠들고 있는 《평화》와 《안보》란 북침전쟁과 전쟁공포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하고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떠들지만 리명박 《정권》이 저지른 지난 수년간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 후호도 변성할 줄 모르는 이따위 정당이 달라질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남조선에서 몇이나 되겠는가. 《과거와의 단절》, 《미래》를 떠드는 반역당의 추태는 또다시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여 《정권》을 다시 차지해보려는 구차한 속입수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반역당의 거짓선전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 모두가 반역 《정권》에 침을 뱉고 다가오는 선거들에 서 존엄히 심판하려고 버리고있다.

이 민심의 심판에서 《새누리당》이 벗어날 길은 없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목사 송철민

과연 《과거와 단절》 할 수 있는가

남조선에서 오는 4월 11일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계가 소란한 속에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의 《단절》을 표방하고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대표 라지오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실성공 미배로 나가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20일에도 그는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과감한 쇄신을 하고있다.》며 또다시 《단절》라령을 읊어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단절》론은 사람들에게 한갓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뿐이다.

《새누리당》의 현 당국과의 《단절》론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한갓 민심기만극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후신으로서 《새누리당》이자 현 당국이고, 현 당국이자 《새누리당》이라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공통된 심리이다.

당국과 공생관계에 있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단절》을 떠들어든 그것을 끝이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와 단절하자면 뉘니뉘니해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반성과 사과없는 과거와의 단절이란 있을수도 없고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 현 《정권》의 지난 4년간 최악이 한

갓 리명박개인의 죄악에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다. 리명박과 《한나라당》, 오늘의 《새누리당》이 같이 저지른 공범죄이다.

총계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비핵, 개방, 3000》마위와 같은 동족대결정책으로 한순간에 파괴한 죄악, 동족을 암살하기 위해 미국을 등에 업고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죄악, 미국산 소고기시장개방을 비롯하여 친미사대정책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팔아먹은 죄악, 친제벌정책으로 민생을 파탄시키고 《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으로 남조선사회를 파쇼의 란무장으로 만든 죄악,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각종 부정부패죄악 등 현 당국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짝자공이하며 저지른 죄악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입으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해서 그 말을 끝이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죄악을 얼렁뚱땅 덮어버리고 과거의 잘못은 모두 현 집권자에게만 있는듯이 뉘새를 피우면서 자기들은 그것과 《단절》하겠다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여론에 대한 과렴치한 기만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동행자를 내팽개치고 달아나는것과 다름이 없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이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하는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새누리당》의 뿌리는 《유신》독재이다. 오늘의 파쇼독재는 《유신》독재에 시원을 두고있고 북남관계를

파괴로 몰아온 리명박 《정권》의 극도의 동족대결정책도 《유신정권》의 대결정책의 연장선수에 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이러한 파쇼 대결정책, 체질화된 파쇼와 대결의 기질이 어떻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더우기 지금 《새누리당》을 장악하고있는것은 《유신》독재자의 후예이다.

《유신》의 후광을 입고 《새누리당》을 거머쥐고 《대통령선거》전에도 뉘어뉘러고 하는 그들이 과연 《유신정권》을 부정할수 있는가. 부정한다는것은 결국 자기를 부정하는것이고 자기의 뿌리, 줄기를 자른다는것인데 그렇게 할수도 없는것이 《새누리당》패거리들이다.

《과거와 단절》을 부르짖는 그 입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유신》독재자의 《치적》을 광고하는 《기념관개관식》에 참가하여 과거의 죄악을 미화분식한것만 보아도 《새누리당》의 《단절》라령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 하는것을 세상사람들은 똑똑히 느끼고있다.

지금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부르짖으며 마치 세세상을 안아오기도할듯 《유신》이요 뉘오 하고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거지들은 리명박이 하는 짓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것이 여론의 평가이다.

못된 그 버릇 개 주라는 말도 있지만 민의를 침착하게 짓밟아온 《새누리당》이 그 못된 습관을 하

루아침에 고치고 달라질수 없는것이다. 어제날의 행동이자 오늘의 행동이다.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문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현 당국이 남조선경제를 통째로 상헌에게 섬겨버치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민심은 그것을 제2의 《올사조약》으로 락인하고 그 폐기를 요구하며 대중적인 촛불투쟁을 벌였었다. 지금도 그 촛불투쟁은 계속되고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 무슨 《국익》을 떠들며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한사코 고집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떠들며 《새누리당》이 하는 행동이다.

결국 그들의 《단절》라령은 어지러운 과거와 파쇼독재시대를 부활시키겠다는 복귀라령이다. 세상에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새누리당》은 결코 자기 뿌리를 잘라버릴수 없다.

《새누리당》의 《단절》라령은 《선거》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낱아빠진 케코드관소리이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변화》와 《단절》을 떠들며 당명을 바꾸는것은 반역정당이 흔히 써온 상투적수법이다.

《민주공화당》과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까지 《새누리당》 전신들은 실패하도 위기에 처하거나 《선거》를 앞둔 때면 그 무엇을 변화시키고 창조나 할것처럼 떠들면서 당명들을 바꾸고 《정부》와

의 《단절》을 떠들었다. 그러나 변화된것이 있는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쇼관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반면에 오히려 민족의 자주 통일영원과 사회의 민주화를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소원은 무참히 짓밟히고 인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최근에는 《천안》 호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도락국이 거리낌없이 조작되고 그것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대결광풍이 전례없이 소란스럽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슨 《변화》와 《단절》의 타령말에 당명바꾸기놀음을 벌리면서 《새누리당》의 전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하는것도 오는 《선거》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달라질수 없고 과거와 단절할수도 없다. 과거와 진짜로 단절하려면 《새누리당》 자체를 폭파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단합인 《새누리당》은 정계무대에선 완전히 매장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반역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동족대결은 심화되고 남조선사회는 더욱더 파쇼화될것이며 민생은 극심한 도란에 빠지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반역패당은 구역질나오는 《단절》라령을 건어치우고 인민들의 요구대로 스스로 자기 몸통을 조각내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응철



북침전쟁연습책동 규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가 20일 리명박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호전세력이 《통상적인 훈련》의 명목으로 조선전해 5개 섬에서 포사격훈련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지극히 하였다. 성명은 호전광들이 유령선을 구실로 전해섬들에서의 불법적인 전쟁연습에 매달려도 자기의 야욕을 채울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무자비한 대응타격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기다려달라》는 특등매국노의 망언

말발은 지금 온 민족의 치욕은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독도는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적경지에서 보나 우리의 민족의 고유한 영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명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여기에는 독도를 분장의 씨앗으로 삼아 재침책동을 현실화함으로써 지난 시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대이 실현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있다.

일본이 독도를 제땅이라 우기며 날이 갈수록 횡포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은 그것을 목인, 조장해주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친일사대매국행위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무슨 《과거를 묻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니, 《사파하리,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관계》니 뉘니 하며 대일굴욕외교의 막을 올렸다.

리명박이 얼마나 일본을 제 할애비 섬기듯 하였는가 하는것은 최근에 폭로전문사이트 《위클리》가 밝힌 자료내용을 보고서도 잘 알수 있다.

내용인즉 2008년 7월 당시 일본수상 후쿠다가 리명박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학습지도서에 독도를 《다계시마라고 쓸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에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비굴하게도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구절하였다. 이 문제

가 그때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의해 공개되어 남조선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조선 《정부》는 그에 대해 정면부인했다. 하지만 이번에 《위클리》에 의해 당시 일본주재 남조선대사관 1등서기관이었던 강영훈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리명박이 후쿠다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한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

중에도 없는 리명박의 처사는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올사5적》들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와 다를바 없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자의 이 비굴하고 투주한 언행은 과거청산마저 회피하는 오만한 일본 총체적정국파란으로 리명박 (대통령) 이나 박근혜위원장이나 똑같은 책임자이다. 2012년은 리명박 《정권》과 박근혜위원장에 대한 심판의 해이다. (22일 남조선의 민주통합당 문성근최고위원이 한 말)

《리명박 (대통령) 과 박근혜위원장》은 동반자이다. 박위원장은 지난 4년동안 날치기된 법안 8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개 법안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통합당 박영선최고위원의 말)

본사기자 김철호

핵화약고우에서 《핵안전》타령을 하려 한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3월 하순에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개최한다고 분주함을 피워내고있다.

리명박은 이 회의가 《동북아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느니, 남조선의 《위상이 올라갈것》이라느니 뉘니 하고 역설하였다.

분수없고 주제넘은 너두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핵무기가 도처에 널려져있는 남조선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를 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 리명박 《정권》이 미국과의 북침전쟁사환국이고 돌격대라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서 핵우산을 구걸한것도, 해마다 미핵항공모함을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있는것

이기도 하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보수일각에서는 《북의 싸이베레도》 설을 또다시 꺼내들고 《대응》나발을 불고있다.

항상 동족을 걸고들며 저들의 못된짓을 합리화하려는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의 좁스러운 발상이다.

리명박과 보수집권세력이 《핵안전수뇌자회의》에 그토록 의의를 부여하며 분주히 놀아대는 속심은 뉘드름하다.

민심의 규탄을 받고 제 족속들에게서도 배척당하는 안팎공사동시신세가 된 주제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기를 올려 《총선》전야의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키자는것이다. 이와 함께 《북의 핵위협》설로 반공화국국제공조체제를 형성하자는 흥심도 반영되어있다.



위험한 놀음

역적패당을 단죄

재미 동포인 인터넷 신문 《민족통신》이 19일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역적패당을 단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날로 악랄하게 감행되는 리명박 《정권》의 친미사대, 반통일적당동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현 보수집권세력이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인 북과의 화해협력력을 반대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과 전쟁위기로 몰아왔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과거독재자찬미에 환장한 보수세력을 비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친일, 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저지를 위한 력사적의실천련대가 21일 과거 박



남조선인민들 과거독재자찬미에 환장한 보수세력을 규탄

정회독재찬미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당의 발악적당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성명은 이날 보수세력이 남조선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박정희를 찬미하기 위한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반력사적책동으로 기록되게 될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박정희는 해방전 일본군장교가 되어 항일세력탄압에 앞장섰으며 그후 이 죄악을 교묘하게 감추고 부정선거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독재통치를 실시한자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이 기간 박정희가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고 1%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를 공조하였을뿐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인권을

《MB, 박근혜 똑같은 책임자》

《MB, 박근혜 똑같은 책임자》

《정권》

한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던 서 북남대화에 나오려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공화국의 대화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정면으로 북남당국대화를 부정해나섰다.

남조선당국의 대화부정적 자세는 그들이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접촉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으며 금강산관광개장권과 관련하여서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고의 수준에서 다 풀어주는 성의도 표시하였다.

그리고 북남적십자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여 실현된 가족, 친척상봉을 실현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일당은 악랄

을 저질렀다.

북남대화를 부정하고 차단시킨 반통일대결분자들이 《대화의 문은 열려져있다.》고 떠드는것이야말로 가스소운짓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은 집권기간을 북남대화공백기로 만들었으며 북남관계개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겼다.

다시키보면 남조선의 과거 군사파쇼 《정권》 시기에 북남대화는 있었고 그 과정에 력사적인 7.4공동성명도 탄생하였었다.

그러나 리명박집권시기에는 제대로 된 북남대화가 단 한차례도 없었고 북남관계는 력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것은 《실용정부》의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이 초래한것이다.

대화를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빠트린 리명박일당의 반통일적책동은 두고두고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반역《정권》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3)

대화없는 대결시대를 만든 악의 《정권》

남조선당국이 최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느니, 《기회와 창》이니 하며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놀아내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집권기간 온전한 북남대화 한번 가져본적이 없는 저들의 반대화, 반통일적당동에 가리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집권세력은 권력을 취자마자 《과거식의 남북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남사이의 당국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을 일시에 중단시켜버렸다.

그뿐아니라 여러 수하줄 개들을 내세워 《북을 남쪽의 새 《정권》에 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남관계조정기, 숨고르기가 불가피하

다.》, 《남북대화를 5년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 없이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임기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에 돌 각오가 되어있다.》고 하는 등 반대화적자세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았다.

특히 현인력을 비롯한 대결분자들은 그 무슨 《원칙고수》니, 《기다리는 전략》이니 하는 따위의 꾀병을 내놓고 북남대화를 집요하게 가로막아나섰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원칙고수》타령을 두고 《대화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비난하였는가.

지난 수년간 북남사이에는 대화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다.

보수당국이 집권한 첫날부터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한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던 서 북남대화에 나오려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공화국의 대화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정면으로 북남당국대화를 부정해나섰다.

남조선당국의 대화부정적 자세는 그들이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접촉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으며 금강산관광개장권과 관련하여서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고의 수준에서 다 풀어주는 성의도 표시하였다.

그리고 북남적십자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여 실현된 가족, 친척상봉을 실현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일당은 악랄

을 저질렀다. 북남대화를 부정하고 차단시킨 반통일대결분자들이 《대화의 문은 열려져있다.》고 떠드는것이야말로 가스소운짓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은 집권기간을 북남대화공백기로 만들었으며 북남관계개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겼다. 다시키보면 남조선의 과거 군사파쇼 《정권》 시기에 북남대화는 있었고 그 과정에 력사적인 7.4공동성명도 탄생하였었다. 그러나 리명박집권시기에는 제대로 된 북남대화가 단 한차례도 없었고 북남관계는 력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것은 《실용정부》의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이 초래한것이다. 대화를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빠트린 리명박일당의 반통일적책동은 두고두고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경사로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2.16기념 제4차 전국소묘축전》이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 뜻은 해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축전은 남달리 의미 깊고 사연깊은 축전으로 되고 있다.

전문가부문과 비전문가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축전에는 평양과 지방의 소묘전시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700여점의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출품되

었다. 축전장은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매일과 같이 수많은 관람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축전의 특징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뜨겁게 전백치는 소묘 작품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많이 출품된 것이다.

축전장 한가운데는 펜화

《새 조국의 미래를 키우시며》, 연필화 《장군님과 사과치녀들》, 《파발리의 밤》을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을 형상한 품위있는 소묘 작품들이 모셔져 있다.

연필화 《12월의 밤》, 《피눈물속에 받아안은 어머니사랑》, 《아, 아버지장군님》, 《그리움의 마음》 등은 조국과 민족애에 불멸의 업적을

쌍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겨레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심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필화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화》를 보며 관람자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을 맞으며 당창건기념탑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오열을 터뜨리는 각계층 인민들과 군인들, 어린이들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잘 형성한 이 작품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피눈물속의 12월의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뜨겁게 적시게 했다.

연필화 《장군님! 이렇게 떠나실수는 없습니다》도 장군님과 영결하며 인민들이 터뜨리던 피눈물의 곡성

이 귀전에 생생히 들려오는 듯 한 생동하고 진실한 화폭을 펼쳐놓고 있다.

축전에는 연필화 《강성부흥아리랑》, 《은정어린 사과향기》, 《장군님덕에 꽃피는 우리 할아버지네 집》을 비롯한 인민을 위해 끊임 없는 현지도도강행군길을 이어나가시며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덕을 전하는 소묘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었다.

《적척적 발걸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자》, 《맹세》를 비롯한 소묘작품들에는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기어이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이룩해나갈 천만군민

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

축전에는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 삼천리강산에 굽이치는 통일열기를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참관자들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이 낳은 하나하나의 명화폭들을 보면서 어버이장군님은 우리 겨레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그 리 움 이 낳 은 명 화 폭 들

《 2. 16 기 념 제 4 차 전 국 소 묘 축 전 》 진 행



연 필 화 《 사 무 치 는 그 리 움 의 대 하 》



연 필 화 《 12 월 의 밤 》



연 필 화 《 장 군 님 ! 이 령 게 떠 나 실 수 는 없 습 니 다 》



연 필 화 《 아 버 지 》



연 필 화 《 아 . 아 버 지 장 군 님 》

《 새 조국의 미래를 키우시며》, 연필화 《장군님과 사과치녀들》, 《파발리의 밤》을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을 형상한 품위있는 소묘 작품들이 모셔져 있다.

연필화 《12월의 밤》, 《피눈물속에 받아안은 어머니사랑》, 《아, 아버지장군님》, 《그리움의 마음》 등은 조국과 민족애에 불멸의 업적을

우러러 오열을 터뜨리는 각계층 인민들과 군인들, 어린이들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잘 형성한 이 작품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피눈물속의 12월의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뜨겁게 적시게 했다.

연필화 《장군님! 이렇게 떠나실수는 없습니다》도 장군님과 영결하며 인민들이 터뜨리던 피눈물의 곡성

하늘같은 사랑과 은덕을 전하는 소묘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었다.

《적척적 발걸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자》, 《맹세》를 비롯한 소묘작품들에는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기어이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이룩해나갈 천만군민

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

축전에는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 삼천리강산에 굽이치는 통일열기를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참관자들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이 낳은 하나하나의 명화폭들을 보면서 어버이장군님은 우리 겨레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겨울의 파메기는 별미이다. 파메기란 원래 말린 청어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말린 공치를 의미한다.

파메기의 이름은 옛날에 청어의 눈을 쫄쫄이로 꿰었다는 뜻에서 《관복청어》라고 불렀다가 후에 《관복》의 《복》이 《메기》로 바뀌어 《관메기》로 되었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파메기》가 되었다고 한다.

청어는 겨울철에 동해에서 잡히는데 지방함유량이 높아 쉽게 변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청어를 잡으면 쫄쫄이에 넣어 부엌의 살창에 걸어서 말렸다고 한다.

나무불로 밥을 할 때 나는 연기와 열기가 부엌살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그곳에 청어를 걸어놓아 파메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파메기를 만드는데서 청어 대신 공치도 이용되고 있다. 공치는 청어를 말릴 때와 달리 겨울에 이용하지 않는다. 겨울에 잡은 공치를 바다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짚으로 묶어 나무기둥에 매달아 자연바람에 건조시킨다. 이렇게 하면 공치는 추

운 밤에는 얼고 따뜻한 낮에는 녹는데 이 과정을 2주정도 반복하면 쫄쫄이한 파메기로 된다.

파메기는 맛이나 영양가치의 면에서 매우 우수한 식재료이다. 공치나 청어는 수분함유량이 70%, 단백질과 지방함유량이 각각 20%와 10%내외이다. 하지만 파메기가 되면 수분이 40% 정도로 줄면서 지방과 단백질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산이 80% 정도 된다.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류마티스성관절염, 폐질환 등을 예방하고 뇌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파메기에는 살이나 콩과 같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체내에서 부족되기 쉬운 메티오닌과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많다. 특히 맛을 내는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산이 소고기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된다. 이외에 베타민, 핵산물질, 무기물질 등의 영양성분도 골고루 들어 있다.

본사기자

머리가 총명하고 민첩하며 판단력이 빠르고 말은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자기 한 일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을 가장 싫어하며 질투심이 강하다. 편협한 마음이 있어 남을 오해하기 쉽고 한 번 먹은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너자는 성질이 깔끔하고 치밀하여 매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질투심이 강하여 신경이 늘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신경질 환이 많다.

이 체질의 사람들인 경우 허약하여 땀이 지질로 나뉘어 약을 빨리 써야 한다. 그러되 땀내는 약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원기를 돕는 약을 써야 한다.

식성이 까다로운데 마음에 당기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더욱 소화가 안된다.

위장병의 80%는 소음인에 게서 불수 있다. 항상 땀을 흘려야 하며 겨울이 되면 더운 옷을 입어야 한다. 입삼, 산삼은 불사약처럼 귀중하며 꿀이 가장 흡수가 잘되며 비장, 위장, 간장을 도

와주는데 좋다. 육류는 개, 닭, 염소, 노루, 꿩, 참새, 바다나물과 물고기는 김, 미역, 다시마, 명태, 미꾸라지, 뱀장어, 파슬은 대추, 사과, 꿀, 복숭아, 남새는 시금치, 미나리, 양배추, 홍당무, 옥잠, 감자, 도마도, 파, 마늘, 후추, 생강, 들깨, 단양은 참살, 조, 차좁쌀 등을 많이 먹는다. 음식은 여름철에는 얼음과 자, 참외, 수박, 오이이며 돼지고기, 램뽕, 녹두음식 등도 삼가하는 것이 좋다.

본사기자

우리의 선조들이 리용해온 숯

부터 불을 붙여 불찌가 락 락 뛰는 모습을 보면서 즐겼다

출생한 아기를 업고 처음 외가에 찾아갈 때 아기의 이마에 숯검정이나 그늘을 칠하는 풍습은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깨끗한 것을 보존하여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한다.

우리 선조들속에서 오래동안 리용되어온 숯은 과학적으로 그 유용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탄소함유량이 85% 이상 되는 랑소검정체인 숯은 수심 1~3백m의 구멍이 나있는 대표적인 나노물질로서 냉

수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랑소검고에 숯을 넣으면 냄새 분자가 숯의 구멍에 흡착되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간장독에 동동 띄운 숯덩어리에도 나노과학기술의 지혜가 활용되어 있다. 랑소검어린 숯은 주변의 산소공급을 차단시켜 된장과 같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준다.

숯은 어느 물질보다 환원성이 강하므로 음식과 함께 두면 미질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농사에서 숯의 효과성은 지금 과학적인 검증단계에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효과성은 무균해항생제로서의 기능이다. 레를 들어 집집순사료에 숯을 첨가하면 항생제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땅에 뿌리면 40%의 비료와 농약으로도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미 10여년전부터 유럽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숯을 토양개량, 악취제거, 수질개선 등에 리용하고 있다.

본사기자

축구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가는 가운데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런맹전, 승자전, 승자런맹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승부와 순위를 다투는 국제국내축구경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런맹전(조별런맹전)은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팀들 혹은 같은 조에 속한 모든 팀들이 번갈아가며 대진하여 얻은 총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가르는 경기방식이다. 런맹전은 참가팀수에 비하여 경기기간이 충분하고 참가팀들의 실력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흔히 적용한다.

승자전은 경기에 참가한 팀들이 두 팀씩 맞붙어 진 팀은 떨어지고 이진 팀들이 다음단계로 올라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어 순위를 가르거나 다음단계 진출자격을 결정하는 경기방식이다. 런맹전에서는 한 차례의 경기에서 비겨도 경기를 끝내지만 승자전에서는 경기조직요강에 따라 연장전, 11m차기, 제비뽑기 등으로 반드시 승부를 결정한다.

래왕승자전은 두 팀이 서로 래왕하면서 두차례의 경

기를 진행하여 얻은 총점수를 비교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방식이다. 이때에는 매 경기에서 반드시 승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만일 두 차례의 경기결과 점수가 같으면 상대팀의 나라지역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두배로 계산해 승부를 결정한다.

승자런맹전은 국제축구런맹 월드컵경기대회 본선경기과 올림피아경기대회 축구경기, 일부 대륙별선수권대회 등에서 먼저 참가팀들을 몇개 조로 나누어 런맹전을 진행하고 조에서 순위권에 들어간(보통 1, 2등) 팀들이 다음단계에 올라와 승자전으로 순위를 가르는 경기방식이다.

이밖에도 처음에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팀들이 먼저 승자전을 하고 여기서 이기거나 올리는 팀들과 승자전 다음단계부터 경기에 참가하는 팀들이 승자전이거나 조별런맹전을 진행하며 다음단계 진출권을 획득한 팀들이 모여 승자전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방식 등도 있다.

체육과학원 교수, 박사 리 동 규

약 (11) 글 배 경 휘, 그림 김 윤 일

부터 다른 의사들에게 지워지는 이리저러한 부담이 그 런 의원을 더 혹발적으로 야기시킨 것이 아닌지. 아마의 사로서의 그의 높은 자질과 책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의 당조직과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정년 그 정년직종압감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격분을 금할 수 없었고 그런 물리해와 편견을 통탄했으나 점차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은숙의 마음속고초는 어떠한지 모르겠다. 일을 하면서 주위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괴로운 생활을 계속하겠는가.

이럴 때 세대주로서 응당 방향을 바로잡도록 충고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었다. 나는 옷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책상결 침대에 걸려 앉으며 속으로 망설였다. 그만둘까? 후에 말할까? 만약 그가 그때 그의 심중을 알았다면, 그 쓸쓸한 어조에 갖든 그의 고심을 좀더 깊이 이해했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눈이 일생 빼어난 후회로 남을 줄을 그때 나는 물었다.

“이제 자지. 당신이 나보다 더 피곤할텐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소?” 나의 근심스런 물음에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저... 아무일도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해서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안해주시지요. 어머니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괜한 고생을 하지 않지요... 모르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일...”

어두운 창밖에 망명한 시선을 박은채 쓸쓸한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당신의 얼굴이 요새 말이 아니요.”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차라리 보다 현실성있고 절박한 다른 문제를 연구하는 게 어떨소?” “보다 현실성있고 절박한 다른 문제요?” 은숙은 놀란듯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에 비친 강한 후회나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요. 나도 생각끝에 하는 말이니... 병원에서 당신의 연구를 놓고 뛰뛰하게 돌아가는 말을 나도 알고 있지만 개미지 쳤소.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심숙히 대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